

“수상 기쁨보다 이태석 신부의 사랑·헌신 전달 책임감 느껴”



구수환 이태석재단 이사장,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대상 수상 탐사프로 30년간 제작... 이태석 신부 ‘섬김 리더십’ 널리 알려

“저에 대한 수상보다는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돼서 국가가 행복해 지도록 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상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구수환(사진) (사)이태석재단 이사장이 지난 7일 국립 현충원에서 열린 (사)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 주관의 ‘제4회 최재형상’ 시상식에서 본상(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콜마(주)와 (재)서울여해재단이 단체상을, 남종석 풀란트 한인연합회 회장과 한블라디슬라브 빅토르비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 회장이 활동가상을 각각 수상했다. 구 이사장은 수상소감에서 시상금(1000만원)을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구 이사장은 30여 년 동안 ‘추적 60분’ 등 탐

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라크 등 분쟁 지역에서 중군기자로 활동한 KBS 시사·고발 분야 PD 출신이다. 다큐멘터리 ‘올지마 톤즈’(2010년)와 ‘부활’(2020년)을 비롯해 대중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이태석 신부의 봉사와 헌신, ‘섬김의 리더십’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영화로 만들고 나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하는 ‘부끄러움의 눈물’, 또 하나는 정말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이런 리더가 우리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하는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삶을 끊임없이 알리고 그 정신을 실천으로 이어가면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 13년째입니다.”

구 이사장은 ‘서재필 언론상’(2011년)과 ‘도산인상 사회통합상’(2021년)에 이어 이번 ‘최재형상’을 수상함으로써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상을 세 차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이태석재단은 최근 ▲고등학생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 학교’ ▲이태석 신부의 섬김 정신을 교육 현장에 확산시키는 ‘저널리즘 학교’ 등 두가지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이태석 리더십 아카데미’를 출범시켰다. 구 이사장은 오는 6월 13일 열리는 광주일보 제11기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이태석 신부의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순국 103주기를 맞은 독립운동가 최재형(1860-1920) 선생은 연해주 지역에서 동포의 권익보호와 조선 독립을 위해 헌신해 ‘폐지카’(난로)로 불린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이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초록우산 전남본부·여수후원회 삼혜원과 보호아동 자립 업무협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유성)와 어린이재단 여수후원회(회장 신정일)는 삼혜원(원장 윤명숙)과 2023년 어린이재단 지역밀착기금사업 ‘보호대상아동 자립’ 사업수행기금 업무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제공)

농협 광주본부, 분량농협과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본동로에 위치한 분량농협 동호판매장에서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회장 황금숙) 회원들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들은 관내 27개 영농회를 순회하며 10t 상당의 폐농약병을 수거, 분류작업을 진행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신완마을 휴먼시아6단지, 첨단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



광주 광산구 신완마을 휴먼시아6단지(관리사무소장 서영주)는 최근 광산구 첨단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단체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함께 발굴하고 생활의 안정과 주거지원을 위한 서비스활동, 커뮤니티 활성화에 적극 협력·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회 제공)

한국인 전범 실상 알린 언론인 문창재씨 별세



일제 패망 후 BC급으로 분류돼 처벌 받은 한국인 전범의 실상을 소개한 책 ‘나는 전범이 아니다’를 쓴 문창재(사)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 8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77세.

1946년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양정초와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해 도쿄특파원, 사회부장, 정치2부장, 논설실장 등을 지냈다. 2004년 정년퇴직 후 내일신문 객원논설위원과 논설고문으로 활동했다.

퇴직 후 ‘역사는 하늘보다 무겁다’(2004, 한국문화사), ‘나는 전범이 아니다’(2005, 일진사), ‘증언:바다만 아는 6.25 전쟁 비화’(2010, 일진사) 등을 출간했다.

특히 ‘나는 전범이 아니다’는 동진회라는 모임으로 알려진 한국인 BC급 전범의 실태를 취재해서 국내에 소개한 책이었다. 5년째 폐암 투병을 하는 와중인 지난해 말 저서 ‘징용 조선인은 전쟁 소모품이었다’를 발간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SBS 뉴스 10 2023 마스터스 골프 FR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05 모닝와이드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 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오아시스(재)	15 헬로킴지 공학교실(재) 30 와썹 프리매직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재)
0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 35 남도 지오그래피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03		00 KBS 뉴스타임 10 내 비밀친구 형제(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0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일꾼의 탄생(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0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0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50 생방송 투데이
0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비밀의 여자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0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09	00 KBS 뉴스 9	50 오아시스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꽃선비 열애사
11	30 KBS 뉴스라인	00 걸어서 환장 속으로(재)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2	10 다큐 인사이트(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통합뉴스룸 ET(재)	10 스포츠 매거진 50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40 마이 로컬 텔레비전 베스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25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지스(재)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최고다! 호기심딱지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50 한글용사 아이아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07:00 빅 블루	12:10 극한직업	18:40 EBS 뉴스
07:15 히프와 친구들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돌레길
07:30 띠띠뽀 띠띠뽀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순간 포착, 야생
07:45 뽀뽀뽀 뽀뽀뽀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19:50 인간과 바다
08:00 당동명 유치원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출동! 슈퍼윙스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질란질란 저버-말랑에 가야 할 이유>
08:35 한글용사 아이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1:30 한국기행
08:5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지스	16:40 당동명 유치원(재)	<붉은 맛있다 1부 불날의 장터>
09:05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	17:00 페퍼 피그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17:10 마사와 곰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티타와 쿠마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0일(음 9월 29일 庚戌)

<p>36년생 헬스 나온 성과를 거둘 수 있다. 48년생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바와는 달리 의외로 싱겁게 끝나 버릴 수도 있다. 60년생 우선 순위로 기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2년생 최소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84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소통할 수 있느니라. 96년생 어두운 동굴 속 같은 비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3, 73</p>	<p>42년생 처신을 잘한다면 따르는 이가 많으리라. 54년생 서로 간의 관계를 감안하라. 66년생 중심을 벗어나면 곁들 수밖에 없다. 78년생 주관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90년생 마지막 진면모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니 답답해할 필요가 없느니라. 02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7, 85</p>
<p>37년생 적응만 잘 한다면 길사가 펼쳐지리라. 49년생 추진하고 있던 일이 지연되면서 기다리게 되는 위상이다. 61년생 강물이 왔던 일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올 것이니라. 73년생 우연한 기회가 행운으로 연결되리라. 85년생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일들이 재개되리라. 97년생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62</p>	<p>43년생 정성을 들이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55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차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9년생 대어는 다 놓치고 피라미에 집착하고 있는 성구이다. 91년생 서로 입장을 맞추어 생각해 보자. 03년생 약간 변할 수도 있으나 대동소이하겠느니라. 행운의 숫자 : 16, 78</p>
<p>38년생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국을 살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50년생 하루 종일 매달리더라도 결실은 미미하다. 62년생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넓고 크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부분으로써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86년생 원리를 파악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98년생의 도대로 행해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67, 84</p>	<p>44년생 자신을 낮출수록 귀히 대접받는 법이다. 56년생 분수에 맞지 않으니 욕심 부려서는 아니 된다. 68년생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도량이다. 80년생 실제적이지만 옳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92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마라. 04년생 함께 하는 자리에서 실행하는 것이 제일 낫다. 행운의 숫자 : 07, 59</p>
<p>39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에는 편안하리라. 51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것을 얻는 바가 있으리라. 63년생 상대의 속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만 제대로 조처한다. 75년생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태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87년생 현명하게 살펴보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99년생 헛수고가 될 공산이 크다. 행운의 숫자 : 12, 64</p>	<p>45년생 지출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57년생 거슬러다려도 충고를 귀기울이는 것이 좋다. 69년생 대세가 기울었으니 집착을 버리는 것이 옳다. 81년생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93년생 발전을 위한 노고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느니라. 05년생 우연한 만남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9, 56</p>
<p>40년생 시작은 미미할지언정 진행하면서 흥하리라. 52년생 특별한 점이 있을 것이다. 64년생 마음에 다 차지 않더라도 무던하게 대하는 것이 현명하다. 76년생 일관성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성취하느니라. 88년생 원칙에 따라야만 탈이 없다. 00년생 시기상조이니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행운의 숫자 : 23, 80</p>	<p>34년생 소문은 사실보다 과장되어 퍼져 나가게 마련이다. 46년생 밝고 활기차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8년생 유념하면서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70년생 진행되는 속도는 대담지언정 뜻하는 바는 이루어질 것이니라. 82년생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94년생 판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5, 96</p>
<p>41년생 바쁘지만 하고 싶리는 박하겠다. 53년생 터놓고는 의해야만 수궁하게 된다. 65년생 대화로써 풀이 나가야만 할 것이다. 77년생 기본적인 역할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89년생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공룡스러움이 보인다. 01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동이 있을 수 있으니 매사에 삼가는 것이 정답이다. 행운의 숫자 : 48, 93</p>	<p>35년생 미흡하더라도 일단락을 짓고 볼 일이다. 47년생 양호한 결과를 낼 수 있으니 진중하게 진행해 나가자. 59년생 아차 하는 사이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서 있을 수다. 71년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의미가 있다. 83년생 전방위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허점투성이가 된다. 95년생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행운의 숫자 : 28, 81</p>